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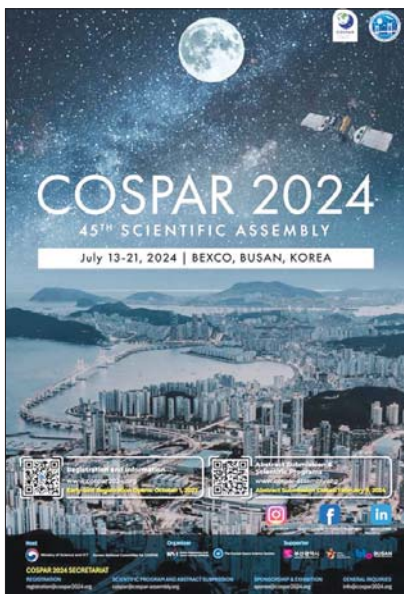
NASA 관계자 등 60개국 우주과학자 부산에 다 모인다

국제우주연구학술총회

벡스코서 국내 최초로 개최
3000여명 연구자, 관계자 참여
전 세계 우주연구 발전 등 논의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예정

우주과학 분야의 세계 최대규모 국제학술대회인 '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학술총회'가 오는 7월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열린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학술총회'는 우주과학 분야 최대 학술행사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우주분야 연구자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을 비롯한 각국 우주개발 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전 세계 우주연구 발전, 국제평화와 협력 정책을 논의한다.



제45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 학술총회 포스터.

이번 총회에서는 60여 개국 3000여명의 우주개발 연구자와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함께하는 우주연구(Team Spirit in Space Research)

h)'를 주제로 ▲개회식 ▲우주기관 연석회의 ▲초청 및 대중강연 ▲전시회 ▲학술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은 오는 15일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인 부산시립무용단의 공연도 진행된다.

초청·대중강연은 14일 오후 진행된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1976년)인 사무엘 팅(Samuel Ting) 교수와 미 항공우주국(NASA) 화성 토양회수 프로그램 책임자인 미나시 와드하(Meenakshi Wadhwa) 박사가 대중강연을 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심채경 박사와 과학 유튜버 케도가 달 과학 토크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회 기간 전 세계 40여 개 기업·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연구와 이들 기업의 핵심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참여 기업·기관

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보령, 미 항공우주국(NASA), 한국천문연구원(KASI), 나라스페이스, 모하메드빈라 시드 우주센터(MBRSC) 등이다.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비행을 30분 정도 펼칠 예정이다.

사전 연습 비행이 7월11일 두 차례 진행되며, 이에 따라 부산 전역에 항공기 비행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서 우주과학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공공기관 9곳 주요업무 점검

울산시는 8일부터 22일까지 울산시설공단 등 울산시 소관 9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방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주요 업무 현황 청취, 부서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방문 일정을 살펴보면 ▲7월 8일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7월 12일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7월 15일 울산테크노파크 ▲7월 16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7월 19일 울산문화관광재단 ▲7월 22일 울산연구원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전남도, 한우 사료 구입비 125억 지원

농가 위해 예비비 활용 '전국 유일'
3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 대상
인상액 200만원 중 100만원 지원

전남도가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비를 활용, 사료 구입비 125억원을 한시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과거 한우값 과동기에 소규모 한우농가의 폐업이 빠르게 진행된 점에 주목,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3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에 농가당 최대 사료비 인상액 200만원 중 100만원을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전체 한우 사육농가 1만6000여 농가 중 1만2000

여 농가, 비율로는 76%가 해당된다. 사업비는 125억원으로, 도비 25억원, 시·군비 37억5000만원, 자기부담 62억5000만원이다. 마리당 6만6000원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화순축협에서 도한우협회와 18개 축협 조합장, 시·군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시 논의된 내용은 사료 구매자금 이자1% 지속 지원,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6만ha)로 사료비 절감, 농·축협 할인 매장을 통한 쇠고기 소비 촉진, 농가의 자발적 저능력우 도태 등 한우 가격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과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증액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창녕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내 10번째, 영남권 최초 지정

창녕군은 창녕군 전역(5만 3051ha)이 영남권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지난 5일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등 9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창녕은 국내 10번째이자 영남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국제조정이사회는 10개국 11곳이 추

가로 지정돼 전 세계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총 136개국 759개가 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3대 지정지역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뛰어난 청정지역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자연에게 얻는 혜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 국내법 외의 추가적인 법적 규제나 행위 제한은 수반되지 않는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은 창녕군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사회·문화·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 용도구역으로 구분해 설정했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집중호우 긴급상황 점검회의

이철우 지사 "인명피해 없도록 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도내 집중 호우에 대비해 8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과도하게 철저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라"며 관련 부서에 재해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5시 기준 상주, 예천, 안동, 의성, 영양, 영덕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문경, 청송, 울진, 북동산지에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도내 여러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긴급 상황 점검 상태와 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피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SMS, 자동음성통보 등으로 홍보 활동도 지속해서 할 예정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10곳 첫 선정

R&D 활동 지원해 경쟁력 향상 도모
2028년까지 총 50개사 선정 계획

김해시가 5대 전략 및 미래기반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10개사를 첫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중소기업들의 선도적·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개사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 전담 부서를 보유한 기업들의 R&D 활동을 집중 지원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개사씩 총 5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분야는 김해 5대 전략산업과 미래기반산업과 연계된 기업이며 지난 3월 시작으로 총 56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과 기술 성숙도 단계에 따라 '도전트랙'과 '성장트랙' 두 트랙으로 구분해 기업당 4000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지원금을 지원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주군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우수'

울산 울주군이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발표한 전국 도농복합시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우수 지역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농어업위는 전국 12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 활력 등 5개 영역의 20개 지표를 평가해 시·군별 지수를 도출했다.

총 129개 지역 중 '농어촌 군' 79곳, '도농복합시' 50곳으로 구분한 뒤 종합 지수를 매겨 각각 상위 20% 지역을 선정했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구미시

통합 주차정보시스템 제공

경북 구미시는 도내 최초로 공영주차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통합 주차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디지털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통합 주차관제 센터, 모바일 실시간 주차 정보, 무정차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24시간 무인 원격 제어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차장마다 분산된 주차관리소를 일원화해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경북)=김상복 기자

고성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흙백쇼'

경남 고성군은 오는 27일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 야외마당에서 2024년 제2회 고성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하나로 '2024 고성 청소년 흙백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3회 중 2회 차 진행 예정인 이번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무더운 여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날리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성군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이번 축제는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에어 풀장 등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부스가 준비됐다.

/경남(고성)=이도식 기자